

3월 15일 교훈

타인에게 베풀기

핵심 구절: “이 땅에는 항상 가난한 자가 있을 것이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가난한 자와 궁핍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그럽게 나누어 주라.”

신명기 15:11

선별된 성경 구절:

신명기 15:4-11

신명기는 하나님의 온전한 율법의 요약으로 묘사되어 왔다. 거의 전편에 걸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신 계명과 지침을 반복하고 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따라야 할 지침으로서 율법을 주셨다. 모세의 다음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이 마치 삶의 지침서와 같음을 보여준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고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항상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신명기 6:24

하나님의 선하심을 배경으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그의 명령을 순종하기만 한다면 이스라엘에 가난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본문은 예배에 관한 다양한 지침에 초점을 맞춘 신명기의 한 부분에 위치합니다. 앞 장에서는 동물을 정결한 것과 부정함 것으로 구분하고 십일조를 드리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유월절()과 이스라엘 예배 달력 속 다른 절기들에 대해 논의합니다.

신명기 15장은 이사야 58:6-7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예배에서 요구하시는 바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택한 금식이 아니겠느냐? 악의 멍에를 끊고, 무거운 짐을 풀어 주며, 억압받는 자를 자유롭게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주린 자에게 네 떡을 나누어 주고, 쫓겨난 가난한 자를 네 집에 데려오며, 벌거벗은 자를 보면 그에게 옷을 입히고, 네 친족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본 교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 속에서 살아가야 할 방식을 제시합니다. 그들은 7년마다 안식년을 지켜 빚을 탕감해야 했습니다(신명기 15:1-3). 그들은 마음을 열고 손을 펴서 궁핍한 자들에게 그들이 부족한 것을 공급해야 했습니다. (신명기 15:7-10). 어떠한 조건도 달아서는 안 되었다. 필요함이 있으면 채워 주어야 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신실히 지키기만 한다면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었다.

구약에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분과 그분의 율법에 대한 순종과 충성의 대가로 지상의 번영을 분명히 약속하셨다. 이는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 일어난 시대적 전환의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 걸림돌이 되어 왔다. 많은 이들이 번영의 약속을 그리스도인에게 잘못 적용해 왔으며, 이 오류는 정신적 혼란을 초래했다.

현 시대의 세속적 번영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에게 약속된 바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가르친 대로 사랑의 법칙을 실천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야 합니다. 누구든지 재물이 있으면서 형제자매가 궁핍한 것을 보고도

동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아, 우리가 말이나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요한일서 3:16-18